

지역 소식통

정읍시치매안심센터  
안심마을로 농소동 지정

정읍시치매안심센터는 치매에 대한 지역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농소동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농소동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과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가족을 위한 돌봄부담분산, 꽃밭 가꾸기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는 농소동 내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주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읍아산병원 등 8개 기관 및 주민 15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에는 지역사회 내 총출한 치매 안전망 구축을 위한 치매 안심 가맹점 지정과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치매를 바로 알고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장애인·보호자  
초청 팸투어 진행

고창군이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11~12일 도내 각 시·군 장애인복지관 등 11개 기관의 장애인과 보호자 30명을 초청하는 트래블로그 고창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팸투어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고창군 장애인복지협회가 힘을 합쳐 Travel(여행)과 log(기록)이라는 테마로 고창을 무장에 공간으로 기억하고 다시 찾고 싶은 치유의 도시로 일리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자들은 고창군 장애인복지관에서 간단히 개회식을 가지고 평소 가기 힘들었던 갯벌에 탐방열차로 방문했다. 또한 고창의 세계유산을 경험하고자 고인돌유적지를 포함한 다양한 관광지도 방문했다.

고창군청 백재욱 관광산업과장은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를 맞아 다양한 직군을 초청하여 고창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초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아·태 마스터스 성화를 맞다

정읍시청 광장서 대회 성공·시민 참여 기원... 14·16일 태인축구장서 축구경기 열려

지난 12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 기간, 경기장을 환하게 밝혀줄 성화맞이 행사가 있었다. 행사는 전북도민의 아태마스터스대회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문화와 대회를 전국에 알리는 한편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1일 익산 미륵사에서 재화된 성화는 차량 봉송을 통해 임실을 거쳐 당일 시청광장에 도착했다.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청 공무원, 시민 등 6백 여명은 전라북도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팀의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연주되는 가운데 성화를 맞으며 행사 성공을 기원했다.

이학수 시장은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을 기원한다"면서 "행사기간 정읍과 전라북도를 찾는 모든 분이 전북과 정읍의 맛과 멋을 마음껏 즐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성황봉송 주주자인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과 부주자인 정읍시새내기공무원 박가영씨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청에서 제일고등학교



지난 12일 정읍시청 광장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 기간, 경기장을 환하게 밝혀줄 성화맞이 행사가 있었다

고 체육관 정문에 이르는 180m 구간을 봉송했다. 이후 성화는 다시 봉송 차량에 실려 고창군으로 향했다. 정읍을 출발한 성화는 고창군 부안, 김제 군산을 거쳐 12일 저녁 전북도청에 안치된 후 13일 전주시를 거쳐 저녁 7시 개막식이 열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 전파된다

아태마스터 대회는 71개 국가 1만 4000여 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종합 대회로 선수들은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각 시·군 42개 경기장에서 25개 종목의 경기를 치른다. 정읍에서는 14일과 16일 태인축구경기장에서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화합의 성화맞이 행사로 유도대회 시작 알러

### 전북 아태마스터스 대회 15일까지 유도 종목 진행

고창에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도 종목이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군청 앞 광장에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성화맞이 행사가 열렸다.

소리지준표전타악팀의 '두드러GO, 하나되GO'의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심덕섭 고창군수가 중화에서 성화에 불을 붙여 주주자인 오철환 고창군체육회 회장에 전달했다.

고창군립체육관에서 15일까지 열리는 유도대회는 229명의 선수들이 모여 경기를 치르며 스포츠를 통한 친선교류를 펼치고 있다.

고창군은 대회 기간동안 고창시티투어 버스와 연계해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세계유산도시 고창을 둘러볼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창에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유도 종목이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고창에서 멋과 맛을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길 바란다"며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재정관리안정성·효율성 확보”

부안군, 금고업무 1금고 농협·2금고 전북은행 약정 체결

부안군은 1금고로 선정된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와 2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 부안지점과 금고 약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약정 체결식에는 권익현 부안군수, 김삼형 NH농협은행 부안군지부장, 김법식 전북은행 부안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부안군은 지난달 24일, 제안서를 제출한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을 대상으로 금고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의·평가해 1순위로 NH농협은행을, 2순위로 전북은행을 의결했으며, 각각 제1금고, 제2금고로 지정했다.

이번 약정의 약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약정기간 동안 1금고인 NH농협은행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3종을, 2금고인 전북은행은 기금7종을 운영·관리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철저한 금고관리를 통해 부안군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며,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함께 부안군의 경제, 문화, 군민복지 등의 증진을 위해 힘써달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출산가정 찾아 축하 행복꾸러미 전달

전북 고창군이 지난 11일 상하면 출산가정과 흥덕면 결혼이주여성의 쌍둥이 출산가정을 찾아 건강한 출산과 생명 탄생을 축하하며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날 군에선 출산축하금 40만원과 임신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200만원, 산모 영양제 등 출산축하 행복꾸러미(10여종)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마을 부너회 등 지역 기관에서도 기저귀와 농산물 등 축하선물을 전달하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화목을 응원했다. 특히 안전한 육아를 위해 집주변 환경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책이 돋보이고 있다. 군은 출산가정 주택 진입도로 포장에 대해 긴급복구비를 지원했다.

또 어두운 마을길 가로등 설치와 실



내·외 해충방제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출산가정의 안전과 건강한 육아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선8기 고창군은 '아아날고 기르기 좋은 고창군'을 위해 자체 예산 8억 9000만원을 확보해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200만원)와 임신출산축하용품(50만원), 출산장려금, 분만진료비 지원 뿐만 아니라 산모산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정읍시, 원예산업발전 통합마케팅 협의회 개최

정읍시는 지난 11일 정읍산자유농센터(APC)에서 2023년 제2차 원예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했다.

6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롯하여 전라·육성품목인 수박, 애호박, 방울토마토, 딸기, 오이, 배, 생강 공신 출하회장, 이정진 정읍단풍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 대표, 송춘호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정진 대표의 정읍산자유농센터(APC) 2023년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 보고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전

환 관련 설명으로 시작했다. 안전으로 2023~2027년 정읍시 원예산업발전 전계획 변경 건에 대한 심의가 이어졌다.

또한 농산물 산자유농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참석위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협의회 안전 심의 결과, 육성품목인 생강을 농림축산식품부의 발자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10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협의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